



이제는 전북입니다!

-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 -

2005. 7



목 차

- I. 계획수립 배경 3
 - 1. 여건 변화 3
 - 2.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4

- II. 전북의 현황 진단 5
 - 1. 전북의 현황 5
 - 2. 그 동안 한 일 9
 - (1) 강한경제 기반 확충으로 잘사는 전북기반 구축 10
 - (2) 도내 전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촉진 12
 - (3) 문화·관광·영상산업 육성과 삶의 질 향상 13
 - (4) 열린도정 역량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 실천 15
 - 3. 반성과 시사점 19
 - (1) 반 성 19
 - (2) 시사점 21

- III. 전북발전의 비전과 미래상 22
 - 1. 전북발전의 미래 비전과 목표 22
 - 2. 세부 실천전략 23
 - (1) New Asian Gate 전략 23
 -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 26
 - (3)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30
 - (4) 더불어 사는 삶의 질 향상 전략 34
 - (5) 신청사시대 행정역량 강화 전략 37
 - 3. 전북의 미래상과 미래 지표 40
 - (1) 전북의 미래상 40
 - (2) 전북의 미래지표 42
 - (3) 전라북도 미래발전 맵 48

I. 계획수립 배경

1. 여건 변화

□ 21세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도청사 시대 개막

- ◇ 낙후와 소외의 20세기를 마감하고, 번영과 희망의 21세기 새로운 도정을 펼칠 효자동 신청사 개청
- ◇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결집하여 강한전북 건설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계기
- ◇ 신청사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 신사고 운동과 역동적인 행정혁신 필요

□ 균형발전정책 가속화로 지방화시대 본격 전개

-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가속화로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
- ◇ 인접한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긍정적인 파급효과 수혜 가능성 예상
- ◇ 재원지방이양, 지방경찰제 등 지방분권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

□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지역특성화사업 시행

- ◇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전북발전의 호기 포착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마련 시급
- ◇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과 파급효과 기대
- ◇ 지역특화발전특구(4개소), 신활력사업 등 낙후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2.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대응

- ◇ 광역시 부재로 인한 불이익 해소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개발권역 설정 필요
- ◇ “π형” 국토축상의 서해축 중심으로서의 “전북권”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계획의 권역별 배분시 전북만의 몫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역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

- ◇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
- ◇ 미래 발전을 이끌 RFT,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 시급

□ 참여정부의 지방중시 정책에 적극 대응

- ◇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신국토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 전개
- ◇ 지방차원의 수용능력을 제고하고, 도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역발전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성 증대

□ 도민의 내생적 발전 욕구 증진

- ◇ 낙후 전북이라는 불명예를 씻어 버리고 새로운 재도약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강렬한 의지 증진
- ◇ 전북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켜 상품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 증폭

Ⅱ. 전북의 현황진단

1. 전북의 현황

□ 면 적

- ◇ 면적은 8,051km²로서 전국의 8.1% 점유

□ 인 구

- ◇ 인구는 1965년 265만명(전국 대비 8.8%)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2백만명이 붕괴되고, 2004년 말에는 1,915,674명으로 감소하여 전국의 3.9% 수준
-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5%로 전국 평균(9.1%)보다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은 20.3%로 노령화 심각

□ 지역내총생산

-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인구점유율(3.9%)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조 2,859억원(전국의 3.1%) 수준
- ◇ 제조업체 수는 전국의 2.6%로 낮은 수준
 -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중이 11.7%로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아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절실

□ 재정여건

- ◇ 재정자립도는 25.1%로 전국 평균(5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앙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농·산·어촌간의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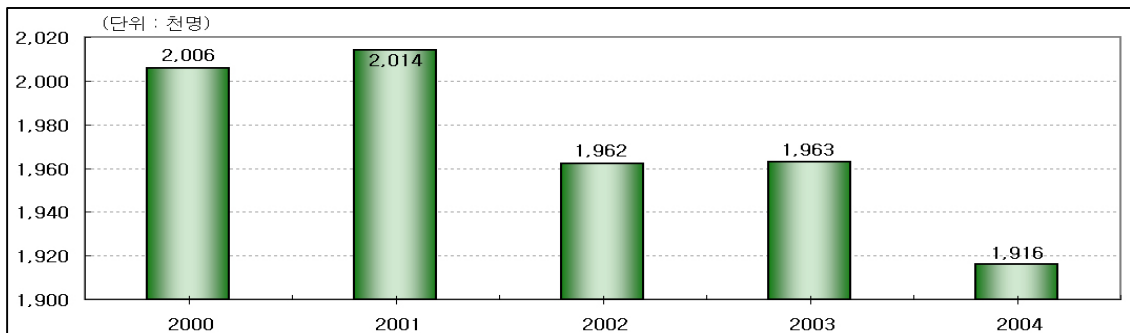
⇒ 산업기반 강화로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절실

□ 주요 지표상의 변화

◇ 인 구

- 젊은 층의 구직, 자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으로 도내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 유출 지역으로 유출 인구 중 64%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주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수(천명)	2,006	2,014	1,962	1,963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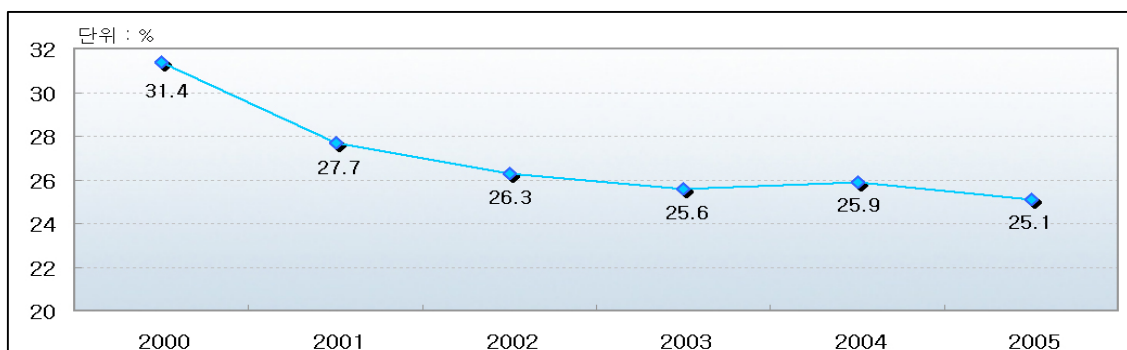


인구 변화 추이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재정자립도는 25.1%로서 전국 평균(5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정자립도(%)	31.4	27.7	26.3	25.6	25.9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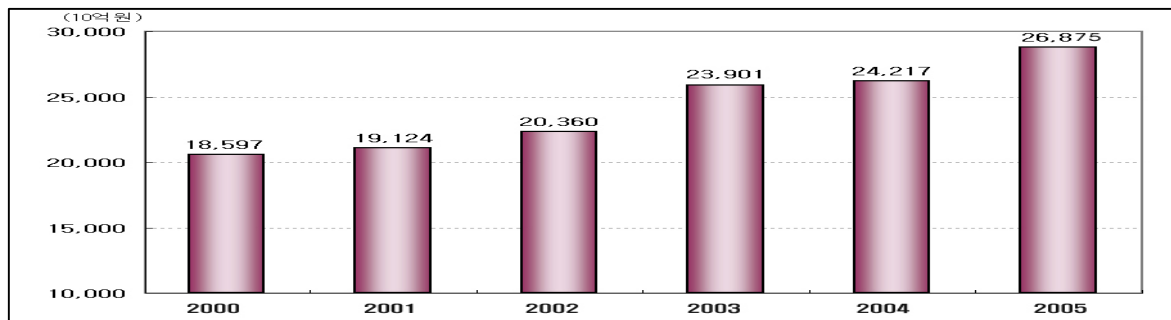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 국가예산 확보

- 국가예산 확보액은 지난 3년간 전년 대비 두 자리 수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규모인 2조 6천8백억원대를 확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 액(억원)	18,597	19,124	20,360	23,901	24,217	26,875
전년대비증가율(%)	-	2.8	6.5	17.4	13.2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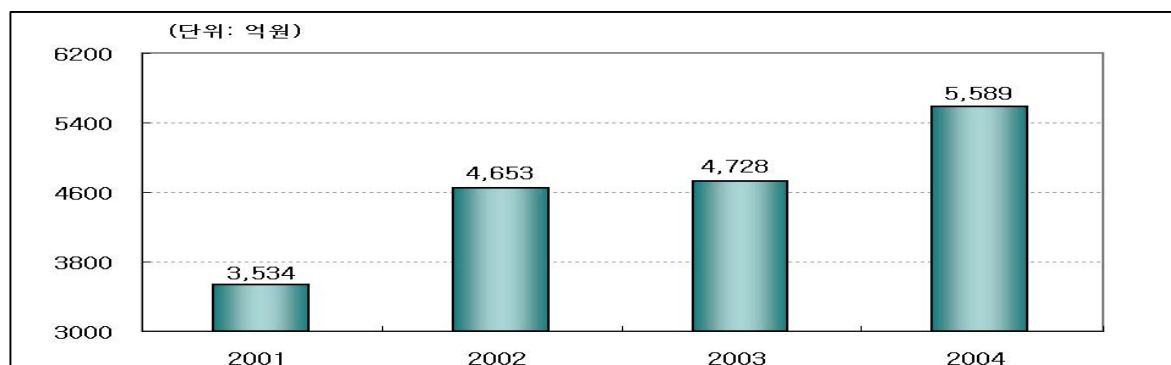


국가예산 확보액 증가추이

◇ 기업 유치

- 기업유치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LS전선(주) 군포공장의 전북이전 결정을 계기로 '05년 들어 8개의 대기업과 60여개의 협력업체가 유치 되는 등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체수(개사)	382	503	511	419
투자유치액(억원)	3,534	4,653	4,728	5,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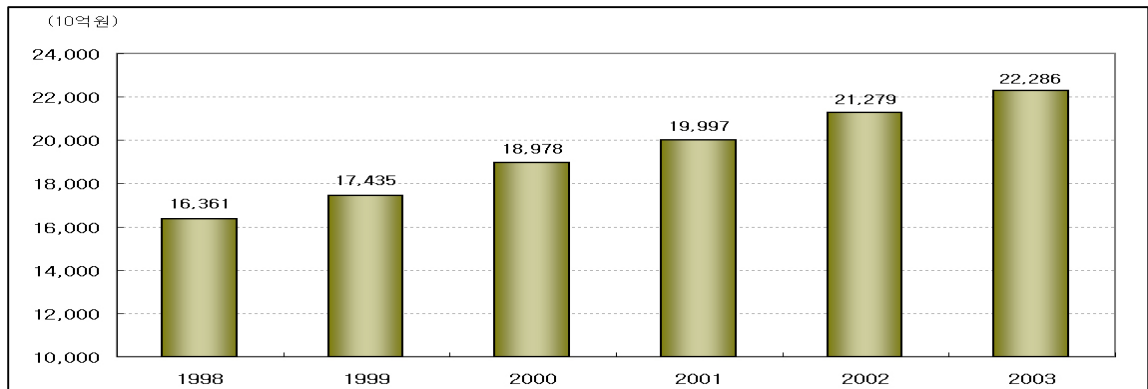


제조업체 투자유치액 증가추이

◇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지난 3년간 17.4% 신장된 3,308십억원의 증가를 보임(경상가격 기준)**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 액(십억원)	16,360.9	17,435.4	18,977.8	19,996.6	21,279.2	22,285.9
전년대비증가율(%)		6.6	8.8	5.4	6.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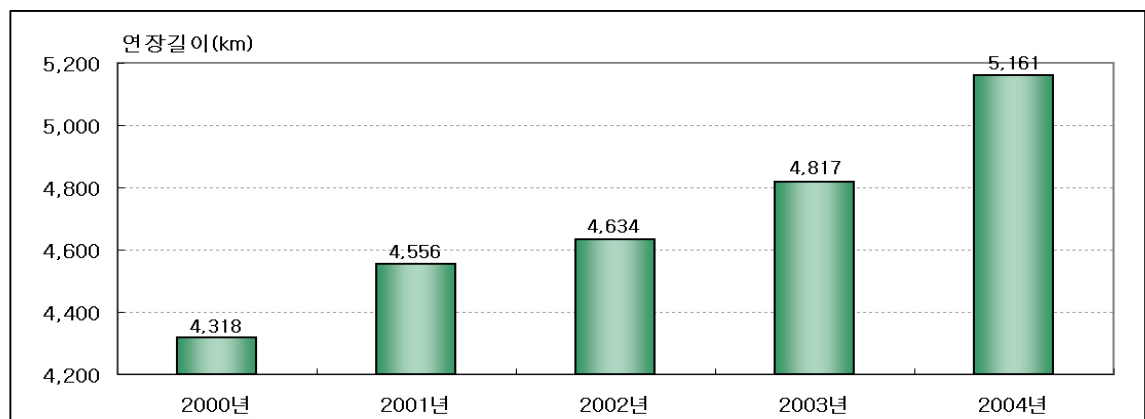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

◇ 도로 연장

- 도로부문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포장 기준)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605km가 신규로 개설되어 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를 열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로 총 연장(km)	4,318	4,556	4,634	4,817	5,161
전년대비증가율	-	5.5	1.7	3.9	7.1



도로연장 변화추이

2. 그 동안 한 일

강한경제 실현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물류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
- 기업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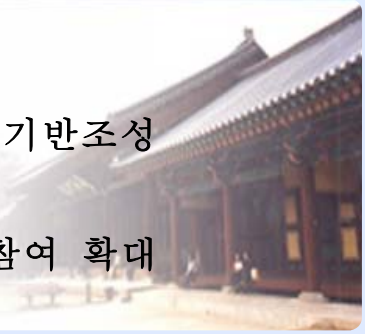
균형발전 촉진

- 중앙 공공기관 유치
- 균형발전정책의 모범적 추진
-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시행
- 동부권·내륙·서해안 연계 관광벨트화



문화복지 향상

- 관광 인프라 구축
- 문화예술 보존과 영상산업 기반조성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정책 기반구축과 사회참여 확대



열린도정 구현

- 통합 전북발전연구원 출범
-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혁신역량 강화
-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 실천
-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민간주도 정착



(1) 강한 경제 기반 확충으로 잘사는 전북 기반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기반강화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준공, 자동차 부품단지 집적화(44만평, 26업체), 첨단장비 도입(20여종 103억원)
- 기계산업 관련 GM대우 RV디젤엔진공장 기공(4,750억원 투자), 인도 타타그룹 상용차 인수(3,650억원 투자) 등 40여개 이상의 기업이 군산국가산단에 입주

◇ 첨단 방사선 융합기술(RFT)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신산업 토대 마련

-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기술개발사업(265억원)
-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 개원 및 2단계 건축공사 시행(140억원)으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의료·공업·환경·생명공학 등 첨단방사선 산업 유치 촉진

◇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점 기반 구축

- 풍력발전기 설치(750Kw 6기, 90억원), 바이오 디젤유 시범보급(1,937kl),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급탕시설(63개소) 설치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중('05. 7월 까지)

◇ 전통발효산업 등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구축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및 남원 허브산업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바이오의 산업화 선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설립,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생물소재연구소·임실치즈연구소·순창장류연구소 등을 설립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조성

□ 물류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

- ◇ 지역과 산업단지 연계를 위한 **철도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효과 극대화
 - 호남선 전철 개통, 전라선의 신리~동순천 구간 복선개량 완료, 군산~장항간 철도 개설('07년 완공예정),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10년 완공예정)
- ◇ 전국 반일권의 **고속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5개 노선(익산~장수, 고창~장성, 전주~광양, 전주~논산, 88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추진
- ◇ 지역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김제공항 부지의 용지보상 완료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 착공에 만전 대비
- ◇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물류 중심지 실현
 - 예산확보('03~'05년) : 4,725억원(총사업비의 21.9%)
 - 2007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재단 설립 및 물류 혁신지원센터(부지 3만평, 전시장 4천평) 건립 추진
- ◇ 군장신항 남측안벽, 남방파제 준설공사 추진('05년 720억원)

□ 기업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 ◇ **LS전선(주) 군포공장을 포함한 대기업 8개사 도내 유치**
 - 협력사 60여개를 동반유치, 신규투자 5,165억원, 종업원 2,800여명 유입 기대
- ◇ **캐나다 리나마사** 등 해외기업의 도내 유치로 외자유치 증대
- ◇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02. 12) 및 기금 확보(232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550개 업체 942억원
- ◇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 중국 상해 통상사무소('03. 4)와 미국 워싱턴 통상사무소('05. 5) 개소로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운영 및 중국과 미주지역 통상 활성화 기대

(2) 도내 전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촉진

□ 중앙공공기관을 유치하여 낙후 탈피를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 ◇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산하 농업과학기술원·작물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축산연구소·한국농업전문학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13개 기관
-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12,049명, 생산유발 8,817억원, 부가가치 3,673억원

□ 균형발전정책의 모범적 추진

- ◇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03. 7)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04. 12)
 - 동부권 지역개발계획 수립('04. 10)
-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 추진

□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시행

- ◇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조성 추진으로 **‘말의 메카’화 기반 구축**
 - 말 테마 종합관광지 등 개발 추진(45만평 1,429억원)
- ◇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적 상징물인 **무주 태권도 공원 유치**(1,644억원)
- ◇ 시·군 지연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전국 10개중 도내 4개 특구 지정(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북분자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 ◇ 과수의 상품성 향상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동부산악권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175억원, '05년 102억원)

□ 동부권·내륙·서해안 연계 관광벨트화

- ◇ 도내 전역의 관광벨트화 기반 조성
 - 국도 및 지방도와 순환관광도로 확충(136개 노선, 5,487억원)
- ◇ 전북 관광 브랜드 강화 및 맞춤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3) 문화·관광·영상산업 육성과 삶의 질 향상

□ 관광 인프라 구축

- ◇ 제3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02~'06) 및 5개 관광권 설정 (역사문화·산악휴양·전통예술·해양문화·새만금 관광)
- ◇ 전국 최초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03. 4)하여 컨벤션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 ◇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시스템」구축사업으로 다양한 휴식공간과 체험관광지를 영상으로 제시 지역관광 관련 사업의 활성화 도모
- ◇ 익산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와 남원 춘향테마파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 국내·외적으로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3 전북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추진
 - 관광객 유치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

□ 문화예술 보존과 영상산업 기반조성

- ◇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연차적 확산과 계승
- ◇ 판소리, 고인돌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결작」 선정
 - 판소리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고, 판소리의 세계화 가능성, 문화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 확인
- ◇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이순신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으로 영상문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 ◇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전주권 미디어파크, 섬진강권역 영상 관광벨트 등 조성 추진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응능력 강화

- ◇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지원 확대 등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 노후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회 운영
- ◇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거리 작업장 신축, 노인 취업 박람회(1만명) 등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 기회 확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자활 후견기관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 급여 등으로 복지의 질 향상
- ◇ 장애인 생활 안정, 자립기반 조성,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확대(15개) 설치, 사회복지관(23개소) 운영 활성화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확대

□ 여성정책 기반구축과 사회참여 확대

- ◇ **여성발전기금 조성**(30억원)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 2004년 22개 단체 97백만원, 2005년 28개 단체 123백만원 지원
- ◇ 여성문화예술 및 복지 증진의 중추역할 수행
 - **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 추진**(130억원)
-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2004년 36.5%), 공공기관 양성평등의식 교육 확대
- ◇ 미래의 주요 인적자원인 여성의 개발과 취업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위탁,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 운영
- ◇ 여성인권 보호사업 확대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4) 열린 도정 역량 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 실천

□ 통합 전북발전연구원 출범

- ◇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상생적 통합을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연구기관인 통합 (재)전북발전연구원 출범 ('05. 3)
- ◇ 도정현안 연구와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 등 지역발전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도정의 싱크탱크 본격 출범

□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 ◇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광주고법에서 수행함에 따라 받아왔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 가능('06. 3)
- ◇ 도민들이 항소심을 도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 및 도민 권익향상 기여

□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로 도정 효율성 배가

- ◇ 도와 시·군간 정책협의회의 정례 개최(11회)를 통해 각종 현안 및 사업의 원활한 협의 추진
- ◇ 광역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전북·충남 교류 협력회의(4회) 및 호남권 정책협의회 운영(2회)
- ◇ 영·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청소년 한마음 캠프, 생활체육 친선 축구대회, 김장김치 전달 등)
- ◇ 황해남도와의 농업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공동체 형성 촉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기여(4차분까지 물자 공급, 11억원)

□ 지역혁신체계(RIS) 공고화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 ◇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전략을 수립 지도할 **전라북도 지역 혁신협의회 발족과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 ◇ 혁신연구회, 산학협력단, 기업협의회 등 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
- TIC, RRC, 지역특화센터 등 혁신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도정의 효율성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실천으로 도민이지 적극 반영

- ◇ 지역 NGO 단체의 의견 수렴 및 도정 간담회의 정례적 개최
(연 2회)
- ◇ 도지사 간담회(6회), 사회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 설명회(6회) 등 개최
- ◇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17개소 완료, 13개소 조성중)
-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선정·위촉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토대 마련
- ◇ 정보화 소외계층 이동정보화 교육 실시(42회 2,520명)
- ◇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교육을 위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
센터 운영(7,200명)

□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의 민간주도 정착

- ◇ 도민 운동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 도민 의식의
정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 8개 부문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시상
- ◇ 민간 주도의 자율적 참여와 추진기반 구축(15개 협의체, 877단체)
- 3대 도민운동 및 자원봉사 활동, 출산장려 운동, 새만금 환경
지킴이 운동 등 전개,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및 자발적 참여
의식 확산

주요 수상 실적

지난 3년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음

2002년 하반기

- 전국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
- 「통합방위평가」 최우수
- 「공공근로사업」 최우수
- 제44회 「민속예술축제 금과들소리」 종합우승
- 농촌진흥사업 우수

2003년

- 국정 주요시책 「여성부문」 최우수
- 「자활사업 추진」 최우수
- 「국가동원능력조사」 최우수
- 전국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
- 지방자치단체 관광홈페이지 「외국어부문」 최우수
- 「민방위시범마을 평가」 최우수(순창군 금상마을)
- 「교통안전관리업무」 최우수
-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최우수
- 제21회 전국연극제 대상
- 국정주요시책 일반복지부문 우수
- 농림업무 추진 우수
- 농촌진흥시험 연구분야 우수
- 전국하천유지관리 우수
- 민방위 역점시책추진 우수
- 장애인 먼저 실천상 우수
- 전자정부 관련 세계 100대 지역 홈페이지부문 우수
- 산림사업 우수
- 판소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 제16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입상

2004년

- 「국유재산 관리」 최우수
- 정부합동평가 「민원서비스 부문」 최우수
- 정부합동평가 「에너지절약 시책부문」 최우수
- 「FTA 과수대책」 광역사업 최우수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연찬회」 최우수
- 제1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1위
- 「상반기 지방 물가관리」 최우수
- 「고품질 쌀 생산대책」 최우수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최우수(행자부)
- 「인사혁신」 분야 최우수
- 「지역개발기금 운영」 평가 최우수
-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 「전국 문예회관평가」 최우수
-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대상(여성부)
- 지방세 연찬회 우수
- 정부합동평가 성희롱예방시책 부문 우수
- 정부합동평가 장애인 우선허가 부문 우수
- 하천제방정비 평가 우수
- 재해 사전대비 합동평가 우수
- 산불방지·임도사업 중앙평가 우수
- 시중 유통브랜드 쌀 평가 3개 우수브랜드 선정 우수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우수
- 전국자활사업 운영평가 우수

2005년
상반기

-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4개 분야)
-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 「지역개발기금 경영평가」 최우수
-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발굴」 최우수
- 지방물가안정 우수
- 도서개발사업추진 우수
- 재해대책추진 우수
- 하천제방정비 우수
- 농림사업 종합평가 우수

3. 반성과 시사점

(1) 반 성

□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 ◇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중으로 관련 산업기반 강화와 R&D역량 성숙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보장 필요
- ◇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계속되는 인구감소 방지대책 필요

-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사회적 증가보다 많은 젊은 층 중심의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됨
- ◇ 돌아오는 고향, 살고 싶은 전복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주 필요

□ 지역 간 균형발전 달성 노력 요구

- ◇ 서부 해안 평야지역과 동부 산악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의한 차이 여전
- ◇ 도내 지역 간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영상·컨텐츠·지연산업 등의 특성화 및 집중 육성 필요

□ 국책사업 유치과정의 전략적 대응 필요

- ◇ 동계올림픽 등의 유치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됨
- ◇ 각종 국책사업 등 현안 추진 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전 도민적 지원과 참여 유도 필요

□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 조정 및 통합 요구

- ◇ 시·도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나누어져 국책사업 유치 및 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 사례 : 새만금사업 추진, 방폐장 유치, 김제공항 건설 등
- ◇ 지역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노력 요구

□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강화 절실

- ◇ 주요 현안 및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
- ◇ 실무협의회, 당정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정 현안 추진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 구축 필요

(2) 시사점

□ 전북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약의 발판 마련

- ◇ 고부가가치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세계화**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맛·멋·예향, 전통문화 등)
- ◇ 농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발효기술, 전통식품, 신영농기법 등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21세기형 **생물·생명공학산업 선점**

□ 발전 잠재력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화

- ◇ 새만금 지역, 군산신항, 산업지구 등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서해 중심부의 지리적 여건 활용으로 **환황해권시대 주도**
 - 중국 성장의 핵심에 있는 청도 등과 가장 근접
- ◇ **국내 최초로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관련 산업 전초기지화

□ 참여정부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호기 포착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지리적 인접성 효과를 극대화 시켜 **국토의 새로운 발전 축 부상**을 위한 전략 추진 필요
- ◇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계기 촉진**
- ◇ 기업도시 유치 및 혁신도시 조성으로 **성장동력 지속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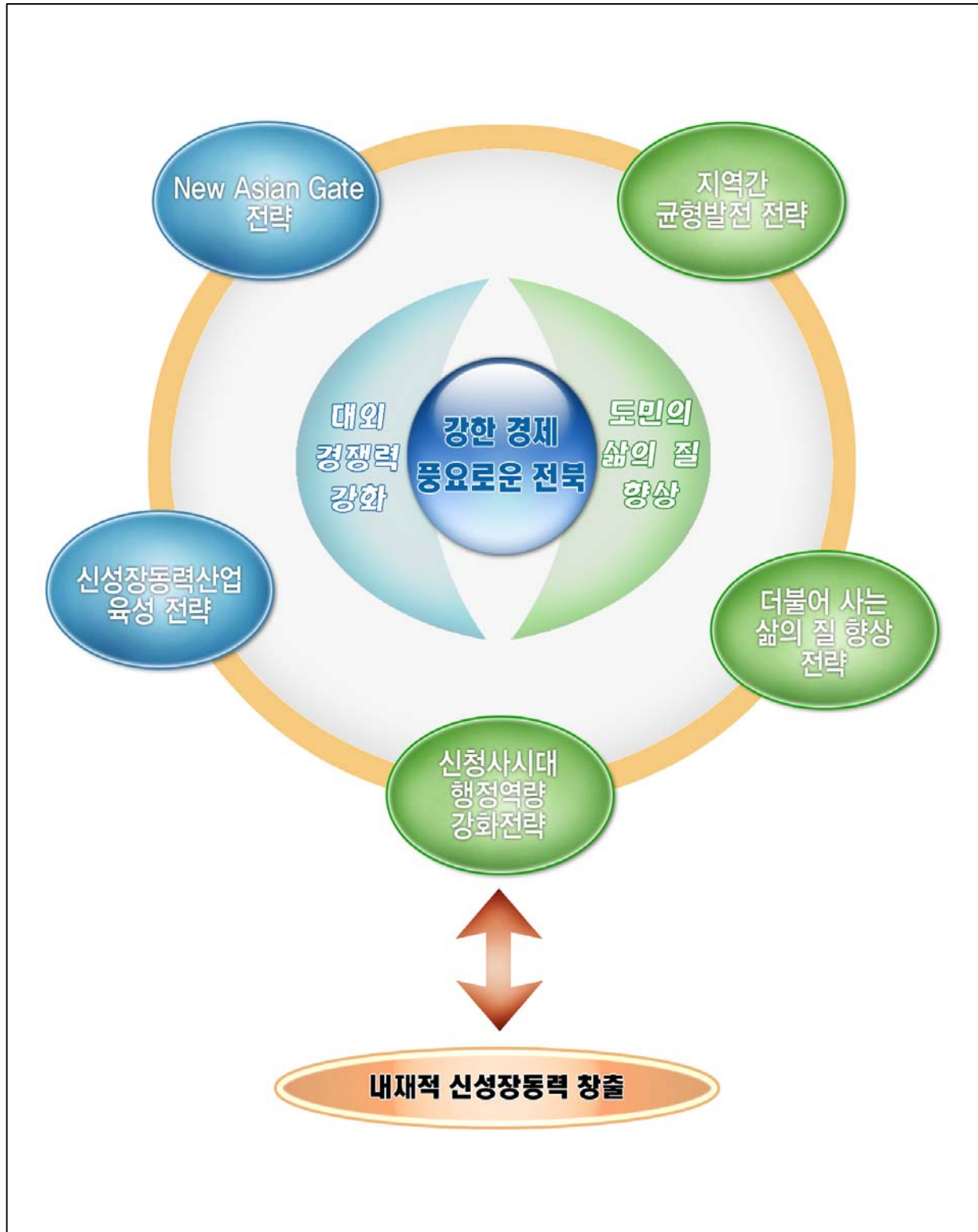
□ 정치권과의 공조 및 지역 내 지역 발전 의지 집결

- ◇ 도청사 효자동시대 개막과 더불어 도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을 발전 동력으로 승화
- ◇ 정치권, 전문가, 사회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적 행정시스템 강화로 지역 **발전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승화

Ⅲ. 전북발전의 비전과 미래상

1. 전북발전의 미래 비전과 목표



2. 세부 실천전략

(1) New Asian Gate 전략

□ 새만금 내부개발 착수

◇ '06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07년부터 내부 토지개발 착수

- 1억2천만평의 새로운 국토 확장과 10억 톤의 수자원 확보
- 내부 토지는 농업용지로 우선 조성하고, 토지수요에 따라 개발

◇ 바다와 호수의 조망이 가능토록 방조제 도로 높임사업('08년까지, 1,115억원) 추진 및 테마별 공원화로 관광효과 극대화

◇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친환경적 순차개발 시행

-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의 분리 개발 및 수질보전대책 지속 추진
- 화훼단지,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산업단지, 수변형 주택단지, 해양관광위락단지 등 조성

◇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

- 내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전담 기구 설치, 행정구역 설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거점기지로 육성

◇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여 환황해권시대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수심 15~25m 이상으로 대형선박의 기항이 용이한 새만금 지역에 대형 신항만을 건설(부지규모 500만평, 부두 10km, 접안 30선석, 화물량(2030) 24,529천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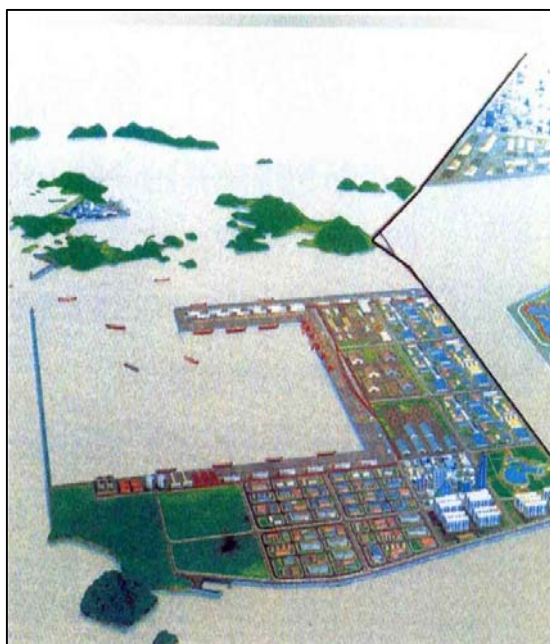
- 중국항만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환황해권 물동량 급증에 대비한 무역항 및 관광레저포트 등 **종합 항만으로 특화 개발**

- 2030년 항만건설 완공을 목표로 하여 **선박수선소 집적단지**와 배후부지에 **대규모 국제물류단지**를 연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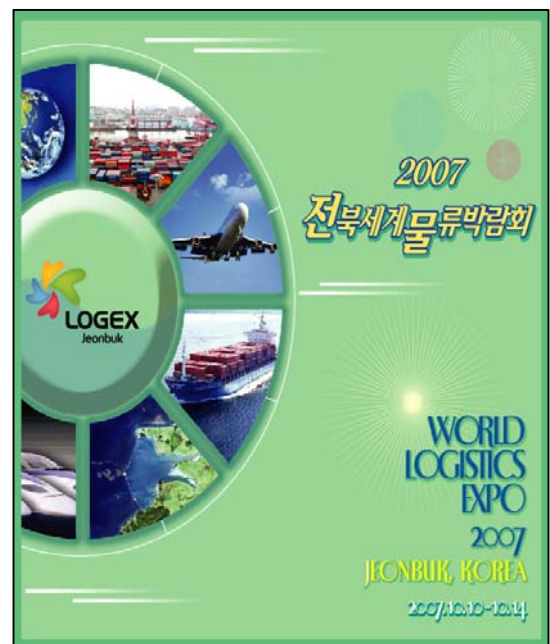
◇ 2007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개최로 환황해권 물류 전진기지의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서 2007년 10월에 개최하여 물류인프라 확충 및 투자유치 추진(15개국 250개 업체, 바이어 1,500명 참가)

- 새만금과 군산지역을 국제물류의 새로운 메카로 육성하여 물류 교두보 구축 계기 마련



새만금신항만 조감도



2007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홍보물

□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 ◇ 군장 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산업·생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모델도시**를 조성하여 대중국·아시아 교류의 전초기지로 개발
- ◇ 국제적인 생산 거점기지로 단계적 조성
 - 1단계(640만평) : 생산 중심의 물류, 관광·위락, 배후 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 국제산업 모델도시로 육성
 - 2단계(1,325만평) : 생산·물류·국제업무, 관광·위락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경제자유도시로 조성



□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 거점 육성

- ◇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방조제 완공과 함께 동진강수역을 중심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우선 개발
 - 「고군산군도+새만금+변산국립공원」을 연계한 새로운 패턴의 체험형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 선유도 등 5개섬(8.579km²)을 각각 특성있게 개발(1조7천억원, 컨벤션센터·호텔·마리너시설·레포츠센터 등)
 - 고군산군도 진입도로 개설(11.8km, 터널 200m, 교량 3개소 1,800m)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 GM대우, 현대자동차의 생산 중심지로 급부상
- ◇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자동차부품 단지 집적화사업, 첨단기계산업 집적화단지 등과 전북 테크노파크를 연계한 **핵심거점 클러스터 조성**
- ◇ LS전선(주)의 4개 부문(트랙터·사출·공조·단조)을 완주산업 단지에 이전하여 기계·농기계 등 전문기계 산업단지로 특화

□ 생물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전통식품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 ◇ 생물산업을 신기술 집약형의 첨단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국제적 특화 추진
- ◇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허브산업 엑스포,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전통발효 및 기능성식품 특화 육성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생물소재연구소, 치즈과학연구소, 장류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생명공학산업 메카화
- ◇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한방응용 질병 치료제 연구개발

□ 첨단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관련산업 우위 선점

- ◇ 국내 최초의 **RFT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의료·공업·환경·생명공학 등 RFT산업 활성화

- ◇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유치하여** 방사선 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을 연계 육성
 - BT, 메카트로닉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의료 등 4대 RFT 산업 집중 육성
- ◇ 방사선이용연구센터 및 나노기술집적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첨단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기본계획을 '06년 1월까지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체험·실증·연구·관광산업기능)
 - 수소 파워파크, 태양에너지 파크, 테마파크관, 이벤트 광장 등 조성
 - 신·재생에너지 R&D 및 실증연구 거점으로 관련 연구원(분원) 유치
 - 테마파크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 ◇ **풍력발전단지** 10기 건설 완료 및 지속적 확대를 통해 에너지 생산·연구·관광자원화하고, 새만금지구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34MW/ 3억불 외자유치)

□ T자형 Valley 구축을 통해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 ◇ 지역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T자형의 산업시설 집적지와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 산업 집적지 : 군산~익산~완주~전주 및 김제~정읍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 R&D 집적지 : 전주(주집적지), 군산·익산·정읍(보조집적지)
- ◇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집적지 주변에 쾌적한 교육·문화·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연구소·공공기관을 유치

□ 지역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 시·군 특성을 살린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 **지역특구로 지정 육성**
 -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고창 경관농업,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 외 추가 특구 지정 추진 및 육성
- ◇ 시·군지역이 보유한 **지연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차세대 전략 산업화** 도모(귀금속·보석산업, 니트산업, 옷칠산업, 장류산업, 유가공산업, 복분자산업, 젓갈산업, 한우산업, 파프리카산업, 허브산업 등)

□ 아큐파이(Occupy) 전북 본격 추진

- ◇ 기업 유치를 위한 **타겟기업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도, 도의회, 민간단체, 출연기관 등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방위적 유치 활동 전개**
 - 2010년까지 대기업(42→70개), 제조업(3,380개→4,300개) 유치 목표
- ◇ 기업애로해소 T/F팀을 운영하여 투자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사항 청취 및 신속해결과 **유치에서 성공까지 One-Process 서비스 제공**
- ◇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전통문화적 콘텐츠를 살린 문화산업 브랜드 육성

-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8대 선도사업 추진**
- ◇ **익산 古都圈('04. 3월 지정) 역사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전·개발**을 통해 고대와 현대문화가 어울어진 관광자원 조성
 - 미륵사지, 미륵산성, 익산토성,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적 산재
- ◇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690억원)
 - 실내촬영스튜디오 구축, 미디어파크 조성 등

□ 전북관광상품 브랜드 「F-Tour」의 개발

-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의 이미지, 정체성, 관광매력과 비전을 담은 **전북의 관광상품 브랜드인 「F-Tour Project」 강력 추진**

- Festival - Tour : 전북 역사·문화 축제 상품 10선 개발
- Food - Tour : 전북의 대표음식 30선 선정 및 상품화
- Farm - Tour : 그린투어상품 20선 선정 및 개발
- Foot - Tour : 발품여행, 체험관광상품 20선 개발

□ 권역별 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 ◇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체류형 관광 활성화

권역	지역	내용
역사문화관광권	전주, 익산, 완주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 체험
해양레저관광권	군산, 김제, 고창, 부안	해양 위락종합 관광, 생태관광, 영상테마파크, 고인돌 공원
동부산악관광권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무주리조트, 마이산, 장수 승마장 등 활용 체험·휴양·레저(승마, 태권도, 동계스포츠,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등)
내륙청정관광권	정읍, 임실	그린투어리즘, 팜 투어(farm tour)
전통예술관광권	남원, 순창	전통 문화예술 탐방, 토속음식 체험

※ 모악산종합개발 : 문화재 발굴조사, 공원관리 일원화 등

□ 장소·스타 마케팅을 통한 영상관광산업 육성

- ◇ 정읍 종합촬영소 및 HD지원센터(700억원)를 설립하여 촬영·편집 등 영화제작의 전과정 기능 수행
- ◇ **섬진강권역 영상벨트를 조성**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국내 제일의 영상촬영단지로 조성
 - 가상전투·병영 체험장 등 20여개 사업(1,500억원)
- ◇ 부안영상테마파크,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등과 연계하여 **서부해안권 영상산업벨트 조성**

(3)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 세계 태권도인의 순례·수련의 장인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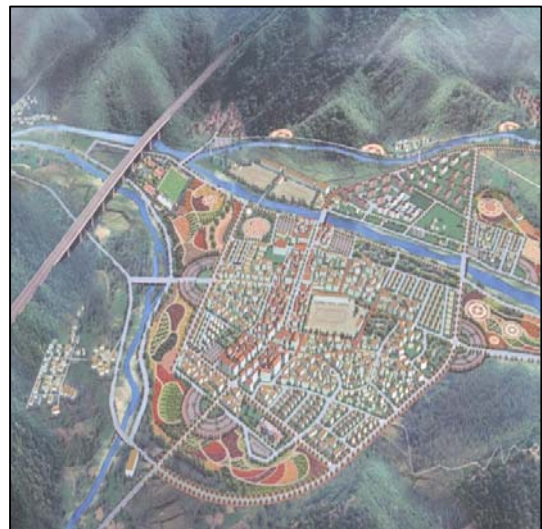
- ◇ 179개국 6,000만명에 이르는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개발('13년 까지)
 - 1단계사업(중심시설) : 명예의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상징광장 등
 - 2단계사업(지원시설) : 정신문화원, 야영장, 극기훈련장, 한방요양원 등
- ◇ 태권도공원 **연계도로망 확충**(4개 노선, 14,395억원)과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단체 이전 및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 ◇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245만평, 1조5천억원)를 조성하여 지리산통합문화권, 장수경주마육성목장, 승마체험레저공원 등과 연계해 동부산악권 관광산업 활성화
- ◇ 고군산군도·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한 **새만금 관광레저형 에코 기업도시**, 군산산단지구와 연계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등 조성



무주 태권도공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육성

- ◇ 공공기관 집단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 T/F팀**」을 구성 가동
 - 혁신도시 건설방안 마련 및 행·재정적 적극 지원
- ◇ **신도시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생활여건 제공
 - 접근성, 산업연관성, 지역발전 기여도, 이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05년말 입지 선정**
 - 규모 : 50만평, 인구 2~3만명/ 기간 : '06~ '12년
- ◇ 관련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민간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우수 인력 유인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유치

- ◇ 도내 희망 시·군에 안전성이 입증된 중·저준위 원전센터를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특별지원금 3,000억원, 반입수수료 85억원 수준/년간**
- ◇ 원전센터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직원 900여명, 부지 13만평, 1,200억 투자, 지방재정수입 42억/년)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함께 유치**하여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선점 및 「**에너지도시**」 건설

□ 서해안 해양선사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 ◇ 서해안권의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족적 문화창달 기반조성을 위해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해안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추진
 - 복합해양관광레저 중심권, 역사문화 중심권, 농경문화중심권으로 관광네트워크를 설정하여 테마식 개발
- ◇ **환황해권의 역사·문화 및 해양레포츠 거점지역으로 조성**
 - 46개 사업, 18,880억원, 계획기간 : '06~'15년(10년)

□ 친환경 광역 경전철망 건설

-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공해 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량수송과 정시성이 확보된 무공해의 경전철망 건설
- ◇ 전주~(삼례)~익산~군산~새만금~김제~전주 간을 연결하는 **광역 도시 간 경전철망(연장 89km)**을 구축하여 호남고속철 및 전주 경전철과 연계
 - 전주권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 건설 추진(4,671억원)



광역도시 간 경전철망 구상

□ 항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 **김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여 항공교통망 확충
 - 중·단기적으로 근거리 항공노선 위주로 투자활성화, 물류기능 분담
 - 장기적으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여 대 중국교류의 교두보 역할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항공노선 취항 추진
 - 부지 475천평, 활주로 1,800m×45m×1본, 사업비 1,474억원
- ◇ 내·외국인의 관광레저 수요증대에 대비한 **동부산악권 경비행장 개발**
 - 동부지역에 분포한 산악형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비행장과 헬기장을 건설

□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1시간대 생활권 실현

◇ **남북축·동서축 연계도로망(2×2)을 신설**하여 새만금 및 행정 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제고

- 남북축(2개) : ①김제공항~익산~논산JCT~천안논산간고속도~행정도시(36km)

②새만금~군산(군장대교)~공주·서천간고속도~행정도시(42km)

- 동서축(2개) : ①새만금~서해안고속도~김제공항~전주간(52km)

②군산~익산~호남고속도(왕궁JCT)~익산·장수간고속도(99km)

◇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5개 노선에 4조 1,490억원 투자

- 전주~광양간(72.7km), 고창~장성간(8.5km), 무주~대구간(30.2km)

- 호남고속도로 확장(전주~논산, 24.7km), 88고속도로 확장(66.3km)

※ 부안~정읍~순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서해안, 호남, 88고속도 연계, 64.5km)

□ 철도기반 확충으로 수송능력 증대

◇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조기 확정 및 착공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축이 될 역세권 개발 추진

- 2015년내 서울~목포간 322.6km 건설(124,340억원)

◇ 전라선 복선전철화(154.2km), 군산선 복선전철화(13.0km), 군산~장항간 철도(17.1km),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27.2km) 등의 완공으로 인적·물적 수송능력 확충

◇ 서해안과 대구·울산·포항 등 동해안지역의 중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새만금~군산~전주~김천간, 120.9km)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 **광주~순창~남원~대구간(200.8km) 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및 중남부 내륙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내륙산간지역 임업·농업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

(4) 더불어 사는 삶의 질 향상 전략

□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FTA 대응

- ◇ 생산시설 현대화·농산품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브랜드화**
 - 고창복분자브랜드 세계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홍삼재배시설(249억원) 등
- ◇ 고품질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 수출전략단지 지원 및 농산물 저온시설 지원(56억원)
- ◇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등 농산어촌의 수려한 경관 및 보전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확대**
 - 농·어촌 체험 테마투어 개발(266억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친환경 농산물 10%수준 생산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친환경 쌀 생산 대단위 종합시범단지 조성, 미생물농업 지원 등
- ◇ **친환경 농업클러스터 구축** 및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으로 농가 소득 창출
 - 서해안 지역 일원에 지역특색 농업클러스터 육성(240억원, 24천ha),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88억원)
- ◇ 종합안전관리체계(GAP)구축과 **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학적 농업생산 기반 구축

□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복지기반 구축과 삶의 질 보장

- ◇ 노인의 재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서비스 강화,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연장 등을 통해 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사업기간 연장(6개월→9개월), 일자리사업 국고보조 등
- ◇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건설**(’05. 5, 진안군 선정)을 통하여 주거·건강·여가·문화 등 통합적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2011년까지 노인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노인의 삶의 질 보장



진안 복합노인복지단지

□ 여성의 전북발전 참여기회 확대

- ◇ 미래의 주요 인적자원인 여성 능력의 개발과 사회참여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제 정책의 지속적 입안과 집행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수탁, 도립 여성중·고등학교 등의 지속적 개선과 운영
- ◇ **여성인권 보호사업 확대** 등 여성보호 및 친화적 제도 구축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 ◇ 저소득층 고용촉진, 직업훈련 강화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로 자립생활 보장
- ◇ 근로여성과 장애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지원 강화**
- ◇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 등의 설치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10억원) 등
- ◇ 생활권별 종합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의료시설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자원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공급

□ 새만금 상류유역의 환경친화적 수질보전대책 추진

- ◇ 하수처리 및 하수고도처리시설(21개소, 1,964억원), 하수관거 등 새만금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하수관거 사업의 BTL 방식 설치**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하수관거사업 : 1,183km, 5,895억원
- ◇ 광역소각시설(전주권 400톤/ 1,133억원)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710대, 160억원) 등을 통해 청정환경 조성
- ◇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5개소) 조성 및 자연공원(10개소)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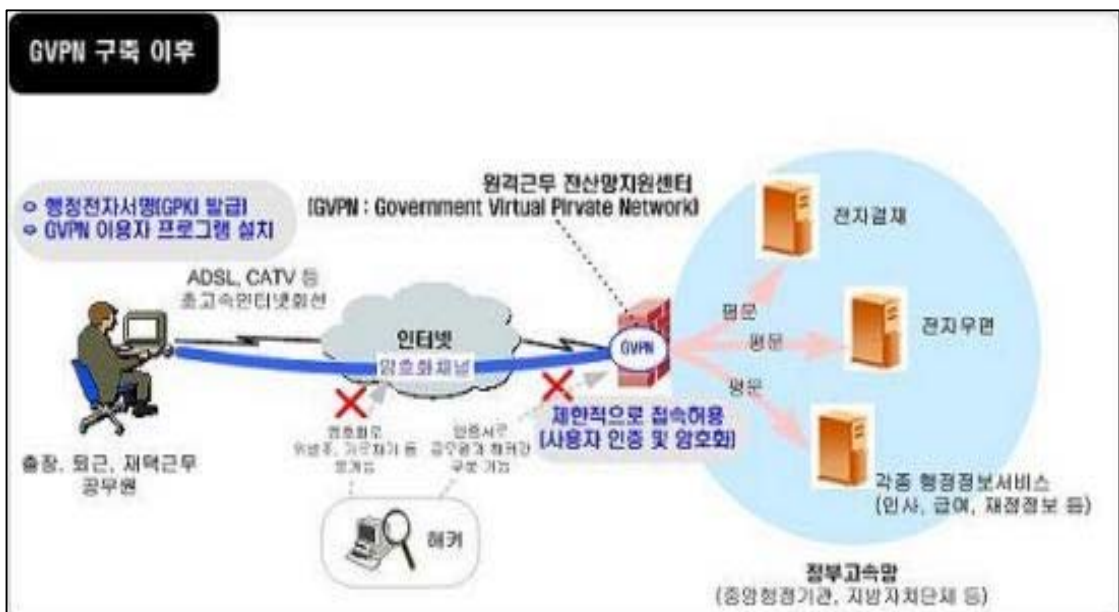
(5) 신청사시대 행정역량 강화 전략

□ 신청사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 우대**
 - 실적가점 부여(근무우수자, 혁신·친절공무원, 중앙평가 우수자 등)
 - 탁월한 실적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제」 운영
 - 열심히 일하지 않은 공무원 「재교육과정」 도입
- ◇ 행정환경변화 대응력 및 조직활력 증진으로 도정경쟁력 강화
 - 실·국장의 「인사 자율권」 확대(실·국내 6급이하 공무원 배치권 등)
 - 외부 전문가 기용 확대(과학산업, 기업유치, 국제통상, 사학 등)
 - 공무원 전자카드, 인사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문성 제고

□ U-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일류행정 실현

- ◇ 유비쿼터스 시대의 U-Knowledge, U-Innovation 구현을 위한 U-Jeonbuk 행정시스템(U-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
- ◇ **주5일제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반 원격결재시스템(GVPN: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을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유치를 통한 발전동력 창출
 - ◇ 로스쿨 설립 인가시 지역낙후도 등을 감안한 ‘1도 1로스쿨’ 원칙을 관철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 민·관·학 연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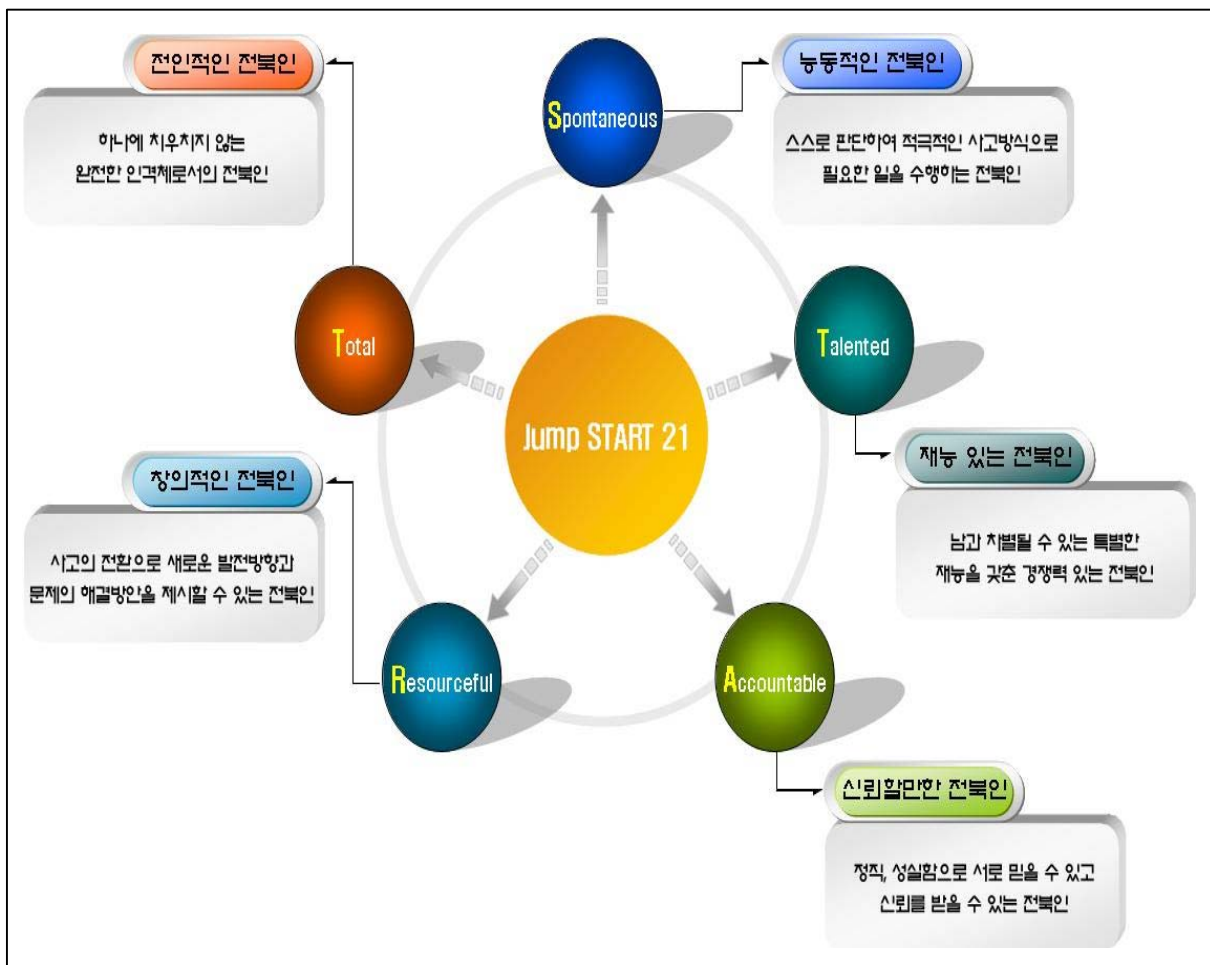
- 행정혁신 성과 가시화로 도정 경쟁력 강화
 - ◇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혁신 추동력 강화
 -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운영, 혁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내부 혁신리더 및 실무자(Change Agent) 발굴 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 서포터즈」 운영 등
 - ◇ 실행과 확산 중심의 혁신과제를 선정 **전방위적 혁신활동 전개**
 -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품질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조직의 유연성 제고 등
 - ◇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의 체감혁신 추진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 주민참여 활성화, 공익활동 지원,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현장체험 필드데이 운영 등

- 전북발전 Think-Tank인 전북발전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 ◇ 전북발전연구원의 도정현안 연구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적극 지원
 - ◇ 지역사회와의 연구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우수 연구기관과 **산·학·연·관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지역혁신협의회의 선도적 운영**으로 고품질 행정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확립



□ 인적자원의 최적 개발·활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일등도민상 구현

- ◇ 지역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 해결 방향 설정, 정책 및 개혁추진, 조정과 사회통합 등 전북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통찰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통합·연계하는 「지도력동원 관리 시스템」 구축
- ◇ 민·관·학·연 전라북도 각계 지도자들의 조화로운 민주적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협의체의 정비 및 실질적 운영**



21세기 변화 혁신 주도형의 일등 도민상

3. 전북의 미래상과 미래 지표

(1) 전북의 미래상

- 위 5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2010년 이후의 전북의 미래상은 GRDP 30조원대의 풍요로운 전북(5J)을 실현하게 될 것임



- New Asian Gate 전략
-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
-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전략
- 더불어 사는 삶의 질 향상 전략
- 신청사시대 행정역량 강화 전략

□ 환황해권 풍요로운 **경제 전북**(Abundant Economy Jeonbuk)

-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물류산업, 차세대 영상문화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풍요로운 자립형 경제 전북

□ 기업 친화적인 **글로벌 전북**(Global Entrepreneurship Jeonbuk)

- ◇ 매력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 전념 하여 기업의 생산적 투자와 경영활동을 마음껏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글로벌 전북

□ 전통문화·관광·영상 **컨텐츠 전북**(Contents Jeonbuk)

- ◇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도 전역 영상·관광벨트화, 태권도 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실현되는 컨텐츠 전북

□ 더불어 잘 사는 **웰빙 전북**(Well-being Jeonbuk)

- ◇ 웰빙 시대에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전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하며, 일등도민의 가치가 조화되고 생활화되어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웰빙 전북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전북**(Human-Eco Jeonbuk)

- ◇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전북을 실현 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가 유기적 조화를 이룬 배출제로의 자연 순환형 휴먼에코 전북

(2) 전북의 미래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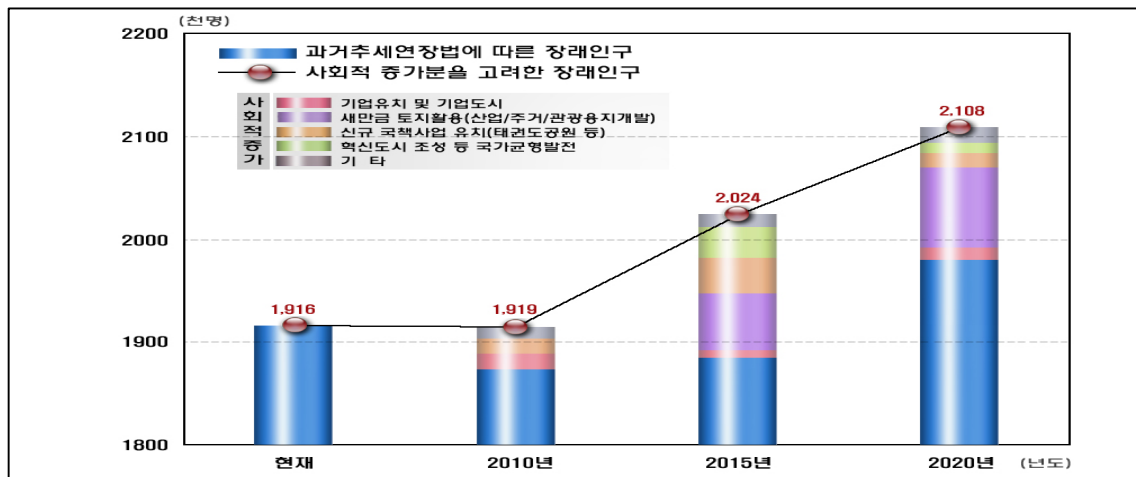
□ 인 구

- ◇ 환황해권시대 전북의 역할 증대와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을 통해 사회적 인구유입 기대(2020년 210만명 인구 보유 추정)
- ◇ 인구증가요인
 - 단기(2005~2010) :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지속화
 - 중기(2010~2015) : 혁신도시 조성완료, 새만금 내부개발, 태권도 공원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상징적 인구규모 200만명 도달
 - 장기(2015~2020) :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효과 등에 의한 안정된 인구성장

<표 4> 전라북도 장래인구 예측

(단위 : 천명)

구 분		현재	2010	2015	2020
계		1,916	1,919	2,024	2,108
보 정 치		1,916	1,874	1,885	1,979
사회적 증가	소 계	-	45	139	129
	기업유치 및 기업도시	-	5	7	12
	새만금 토지활용	-	-	55	78
	신규 국책사업 유치	-	15	35	14
	혁신도시 조성 등	-	-	30	10
	기 타	-	25	12	15



전라북도 장래인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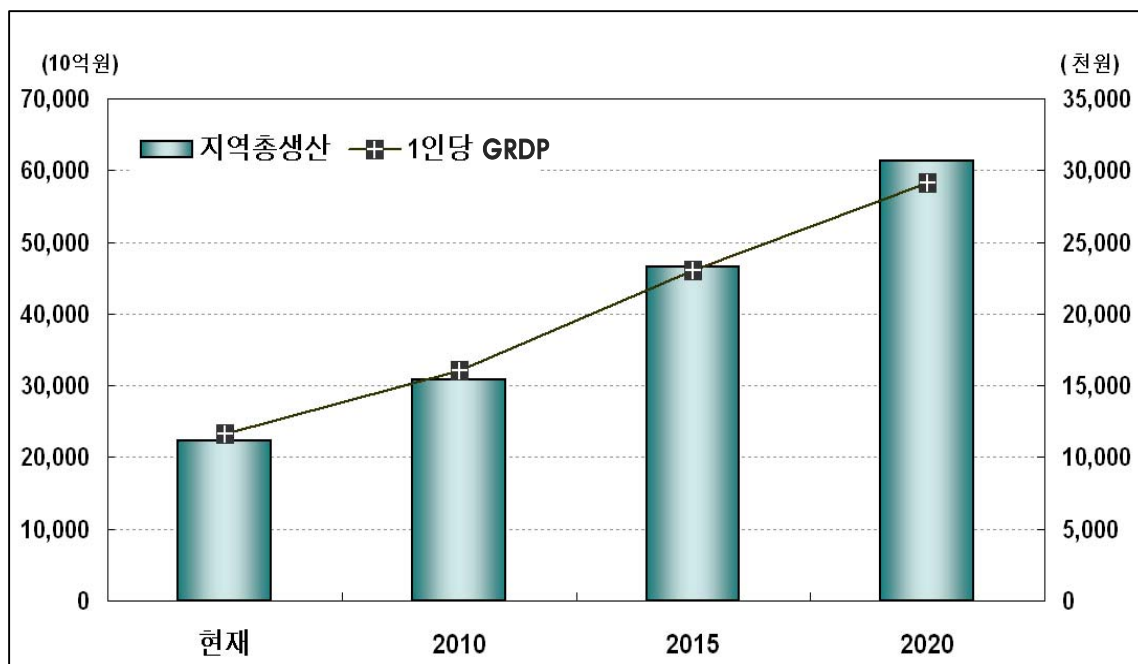
□ 지역내 총생산

- ◇ 전국대비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총량적으로 인구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수준이 개선되어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20년에는 현재 지역내 총생산의 2.75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러한 총량적 성장구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1인당 GRDP도 현재의 11,631천원보다 약 2.5배 신장된 29,100천원으로 성장
 - 따라서 1인당 GRDP는 2010년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전국 대비 120%)

<표 5>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GRDP 예측

2003년 불변가격

구 분	2003(p)	2010	2015	2020
지역내 총생산(10억원)	22,286	30,784	46,633	61,363
1인당GRDP(천원)	11,631	16,042	23,040	29,100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GRDP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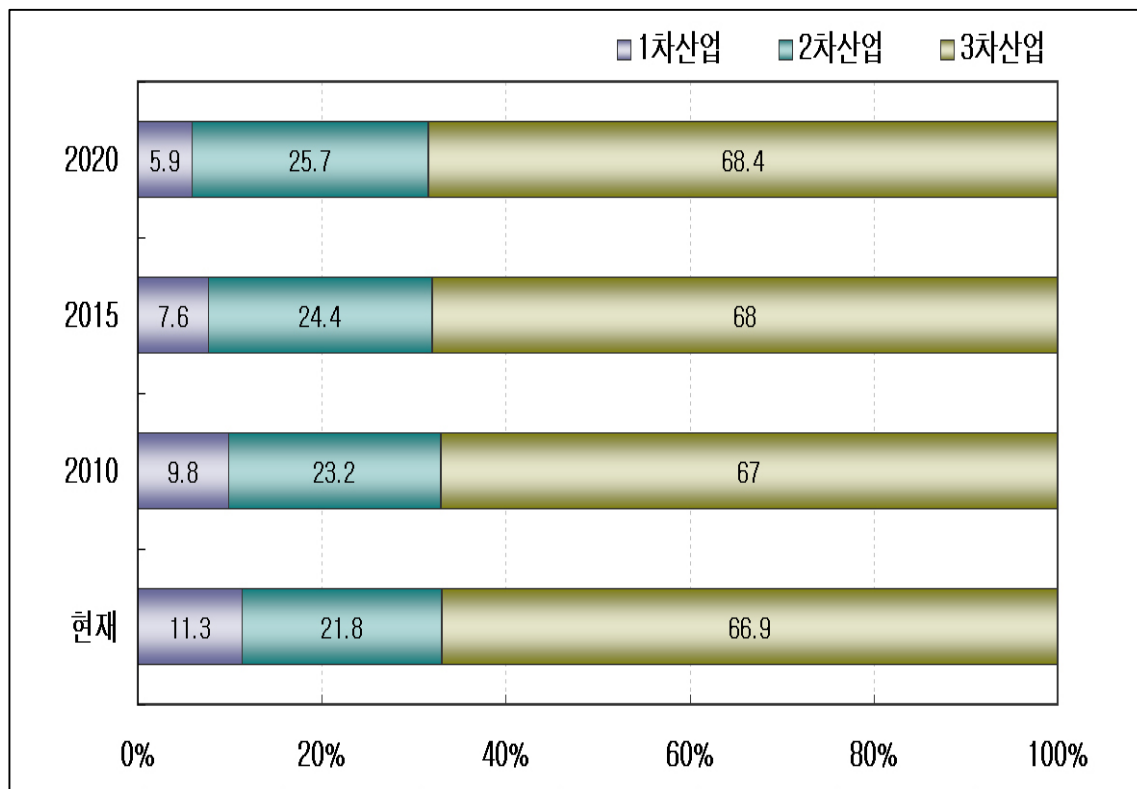
□ 산업구조

- ◇ 전북의 산업생산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 1차산업의 비중은 급감, 2차산업은 2010년을 변환점으로 점차 안정내지 정체수준에 도달, 3차산업의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추정됨

<표 6>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변화 예측

(단위 : %)

구 분	현재	2010	2015	2020
1차산업	11.3	9.8	7.6	5.9
2차산업	21.8	23.2	24.4	25.7
3차산업	66.9	67.0	68.0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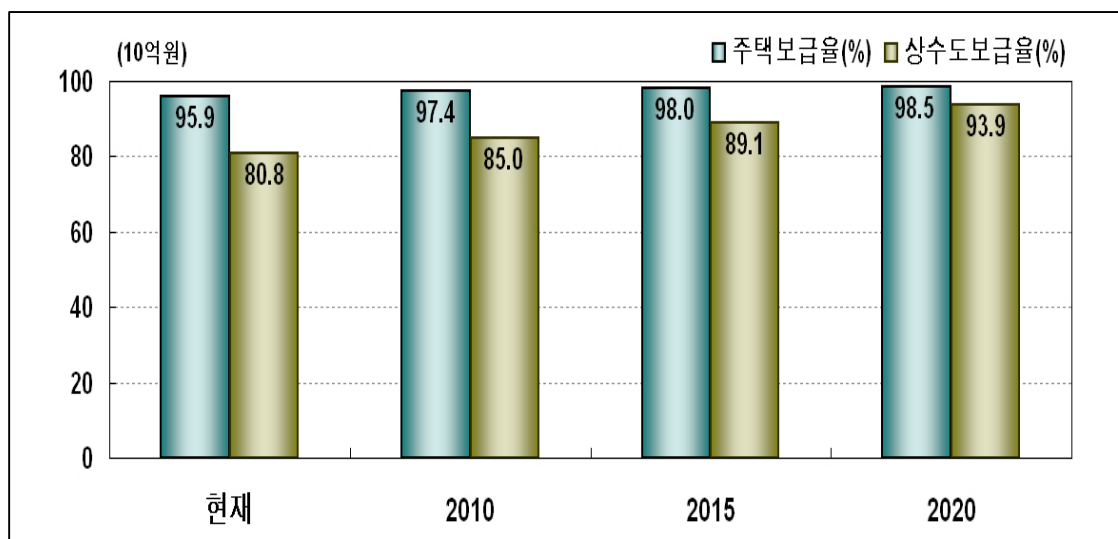
산업구조 변화 예측

□ SOC 및 생활환경

- ◇ 고속간선망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도내 동서지역 및 영남권과의 연계성 강화로 **전국 어디나 1시간 내에 도달가능**
 - 현재 4개노선 280km의 고속도로가 2020년 이내에 고속도로 11개노선 620km로 단계적 구축
- ◇ 신규 주택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주택의 고급화와 저소득층의 주택지원사업 강화
- ◇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되는 상수도 보급율을 향상, 1인당 단위급수량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부상하게 됨
 - 군지역의 낮은 상수도보급율(61.8%)과 1인당 급수량(367ℓ)이 시 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고됨.

<표 7> 전라북도 SOC 및 생활환경 예측

구 분		현재	2010	2015	2020
SOC	고속도로(km)	280.0	318.0	396.0	620
	일반국도(km)	1,413.7	1,463.3	1,520.0	1,591.5
생활환경	주택보급율(%)	95.9	97.4	98.0	98.5
	상수도보급율(%)	80.8	85.0	89.1	93.9
	1인당상수량(ℓ)	398	401	410	436



생활환경 예측

□ 보건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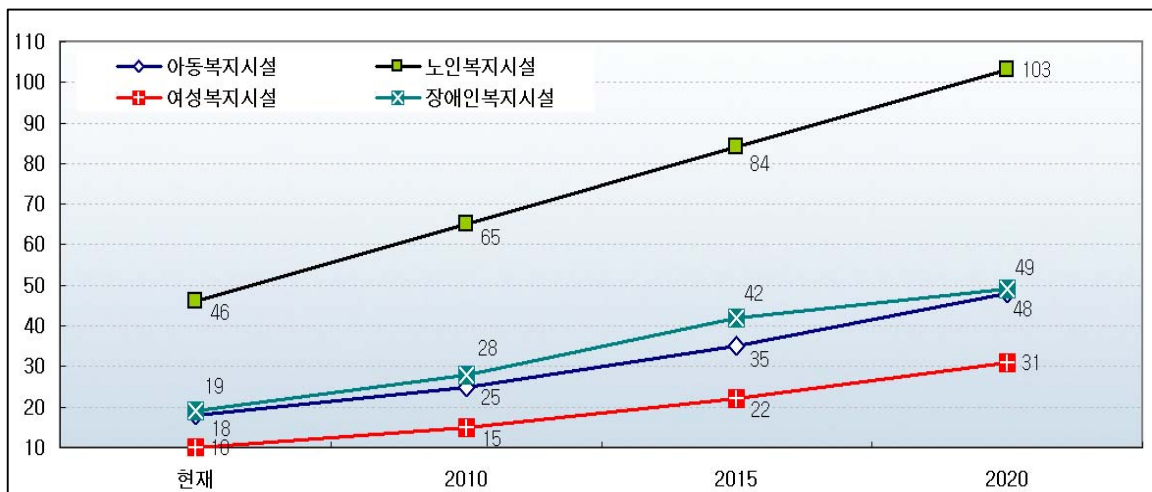
- ◇ 웰빙과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개인 웰빙 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와의 상생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로 보건 및 복지 정책의 신규 사업 확대
- ◇ 보건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자원봉사가 확대되고 웰빙 케어, 명상, 요가 등 신규 직업이 확산되며 복지시설 등의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실버산업의 확대 및 노인 관련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0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103개 시설로 확대될 전망**

<표 8> 전라북도 보건 복지 예측

(단위: 개소, 명)

구 분		현재	2010	2015	2020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8	25	35	48
	노인복지시설	46	65	84	103
	여성복지시설	10	15	22	31
	장애인복지시설	19	28	42	49
보건의료	의료인	11,520	12,839	13,159	14,478
	의료시설	1,806	2,567	3,867	4,989
	의약업	1,743	2,517	3,790	4,464

주) 지수모형에 의한 추정



사회복지시설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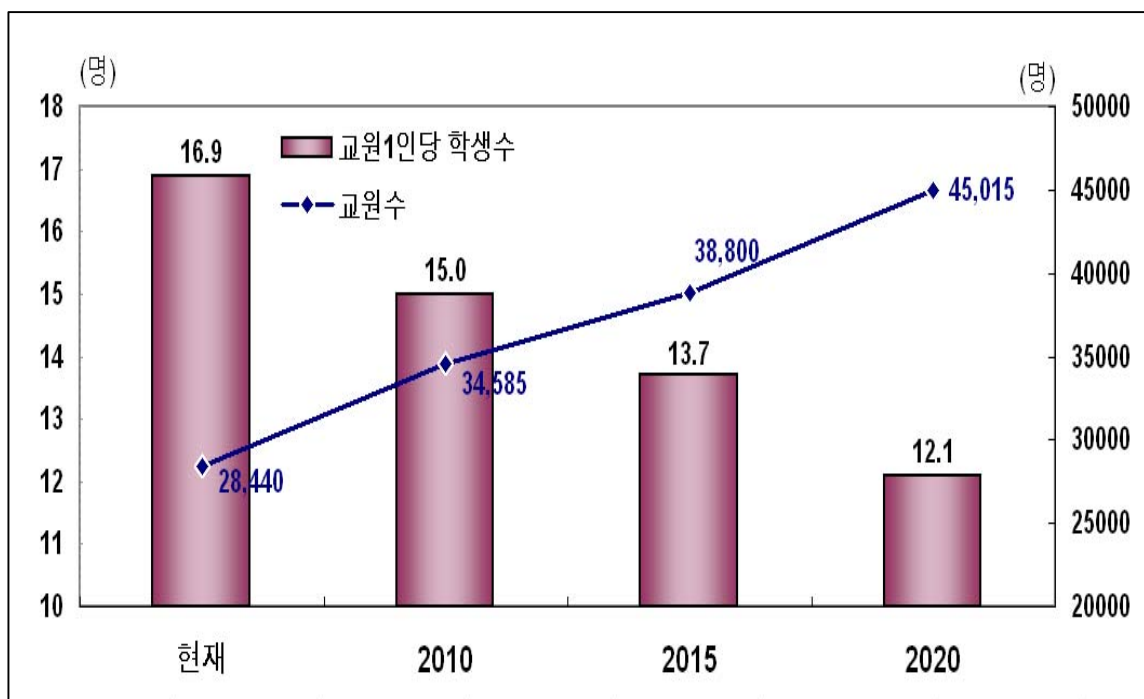
□ 교육 문화

- ◇ 여가 기회 확대 및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문화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문화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 산·학·연·관 등의 혁신 네트워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직업 교육 및 맞춤형 교육 확대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인원 증가

<표 9> 전라북도 교육 문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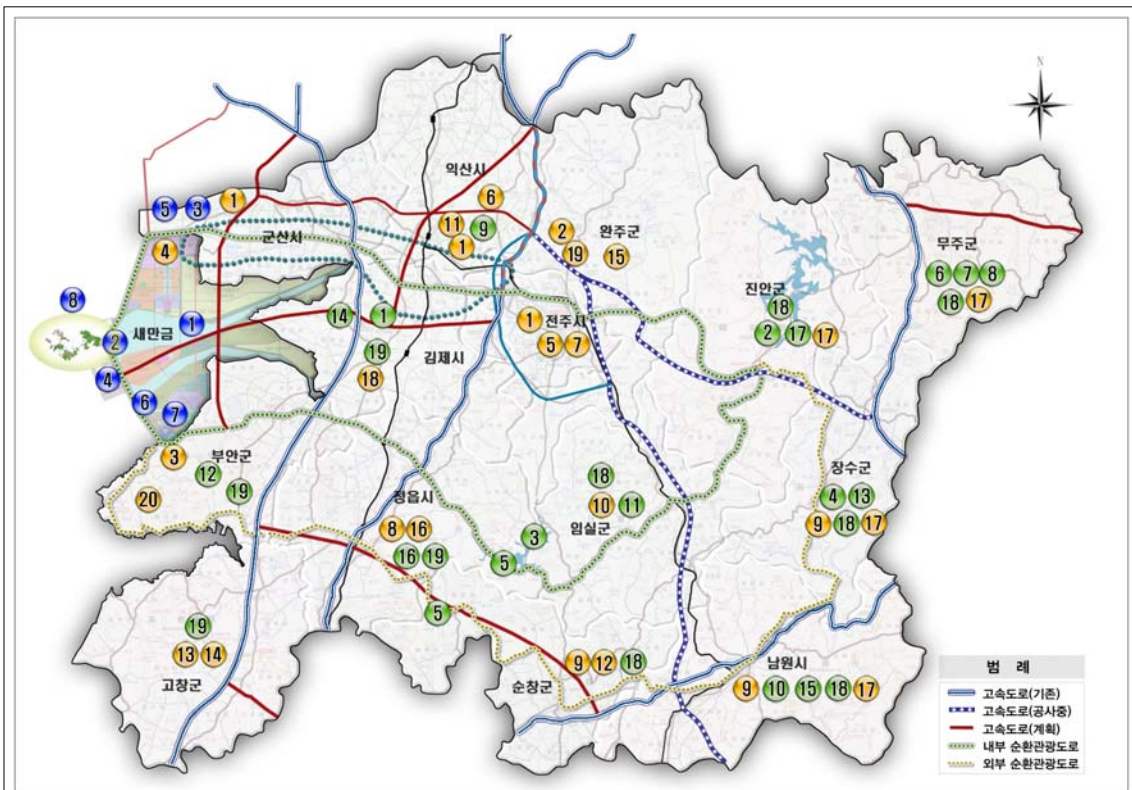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 분		현재	2010	2015	2020
교육	학교수	1,305	1,515	1,585	1,744
	교원수	28,440	34,585	38,800	45,015
	학생수	481,982	520,004	532,678	545,352
	교원1인당 학생수	16.9	15.0	13.7	12.1
문화	공연 및 전시시설	74	81	89	106
	지역문화시설	44	48	53	58
	공공체육시설	70	84	104	128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예측

(3) 전라북도 미래 발전 맵



New Asian Gate

- ①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 ② 새만금 방조제 친환경 테마공원
- ③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 ④ 새만금 신항만
- ⑤ 경제자유구역
- ⑥ 새만금 선박수선소 집적단지
- ⑦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 ⑧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신성장동력

- ① 산업단지클러스터
- ② 첨단과학산업 클러스터
- ③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 ④ 새만금태양광 발전단지
- ⑤ 전통문화중심도시
- ⑥ 고도권 역사문화유산
- ⑦ 국제발효식품엑스포
- ⑧ 종합촬영소 및 HD지원센터
- ⑨ 심진강권역 영상벨트
- ⑩ 지즈과학연구소
- ⑪ 안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
- ⑫ 장류특구
- ⑬ 경관농업특구
- ⑭ 복분자특구
- ⑮ 게임메카단지
- ⑯ 첨단과학신도시
- ⑰ 휴양·체험·레저산업
- ⑱ 친환경농업클러스터
- ⑲ 모악산 종합개발
- ⑳ 부안영상산업클러스터

균형발전

- ① 김제공항
- ② 복합노인복지단지
- ③ 옥정호 국민생태관광지
- ④ 뜬봉샘 생태공원
- ⑤ 관광권역 순환관광도로
- ⑥ 무주태권도 성지
- ⑦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⑧ 경비행장
- ⑨ 귀금속/보석산업, 니트산업
- ⑩ 옷칠산업
- ⑪ 유가공업
- ⑫ 첫걸산업
- ⑬ 한우산업
- ⑭ 파프리카산업
- ⑮ 허브산업
- ⑯ 방사선산업
- ⑰ 종합관광휴양타운
- ⑱ 동부권 종합개발
- ⑲ 서해안 해양선사문화권